

나주 기관장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현명하게 대처”

신년사로 본 경영방침... 한전 '적자탈출'·한전KDN, 플랫폼사업 확대 농어촌공사 '3대 신 경영방향' 발표...aT, 농수산물 수출 다각화 등 내걸어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총수가 지난 2일 신년사를 각각 발표하며 새해 설계를 그렸다.

기관장들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잘 대처하자는 데 입을 모았지만, 광주·전남과 상생 의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지난 해보다 대폭 축소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요금 정상화' 작업을 시작으로 늦어도 내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재무 상황을 위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사장은 올해를 경영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희망을 직원들에게 직접 제시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신년인사를 전했다.

한전은 새해 벽두부터 1980년대 초 2차 석유파

동 이후 최대폭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정 사장은 오는 2026년까지는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전기요금은 충격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단계적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금조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자구노력,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메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한전의 재무 위기로 이어졌다"며 "자구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을 세 번에 걸쳐 조정하고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 매출액 7000억원 달성과 동반성장 최우수등급,

12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대내외적 저력이 드러난 해"라며 자평하면서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의 사업 환경도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뉴스 방송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한 한전 KDN은 지주 사업인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운전·유지보수(O&M)에 대해 기술고도화, 효율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을 세웠다.

김 사장은 "클라우드(서버) 기반의 플랫폼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관행적인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선행투자,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미래를 대비하는 최신(最新)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쇄신(刷新)경영,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革新)경영 등 '3대 신(新) 경영 방향'을 내걸었다.

이 사장은 "스마트 물관리, 청년농 육성, 농어촌 공간 활성화 등 핵심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업기반과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바이오 에너지 보급 등 새로운 기능은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를 실행하고 성공적 국정과제 추진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수출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김춘진 사장은 "지난 2021년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다"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해 수출통합조직,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로 수출 경쟁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포도 등 수출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K-푸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T가 올해 추진하는 정부 재정사업 규모는 총 2조5782억으로, 지난해(2조2079억원)보다 16.8%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원태 원장은 "정원 안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공공기관 효율화와 혁신 가이드라인에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보안·디지털 안전 부문 핵심 자원에 대해 재배치를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며 조만간 조직 안정화 및 기능·역할 재정비를 위한 분부급 조직 개편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 혁신으로 7개 조직을 축소한다.

내년 1월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주명현 이사장은 '빛가람 도란도란 클래스'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자체·민간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 성과를 소개했다. 주 이사장은 올해 중점 업무 추진사항으로 '연금서비스 고도화'와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기능재편 통한 경영 효율화' 'ESG 투자확대'를 내걸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폭설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탁)와 진원농협 임직원 30명은 3일 장성 폭설 피해 시설원에농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연말 전남에 큰 눈이 내려 원예시설 90개 축사 23개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도, 소상공인 신용보증 6600억원 공급...300억 증액

저신용·저소득 특별보증도 시행 이자·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전남도가 2023년에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올해보다 300억원을 증액해 66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사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최근 2022년 행정안전부의 저신용 소

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를 받기도 했다.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무보증료 사업 등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원 한도의 보증을 하고,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3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했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

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위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3.4%의 대출금리 상한제를 실시하고,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들어서서 첫 1년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을 추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융합형 실감콘텐츠 생태계 구축 선도

전국 유일 나주·순천 2곳에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전남도가 스마트전력과 생태환경 등 융합형 실감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남 VR·AR제작거점센터'가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을 초기 스타트업부터 단계별로 육성, 원스톱 성장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나주에서 운영중인 '전남VR·AR제작거점센터'.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융합형 실감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VR·AR제작거점센터'를 나주와 순천에 각각 설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주는 실증·상용화 전진기지이고, 순천은 교육 전진기지다. 전남의 동과 서를 아우르는 운영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산·학·연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등 융합형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두 거점센터를 통해 전남형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전력·생태환경 분야 2개 지정과제와 10개 자유과제 수행을 통해 5개 사에 실감콘텐츠 다중매체 영상 처리 장치(MVP·Multimedia Video Processor) 제작을 지원하고, 13개 사에 실감콘텐츠 제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했다.

또 실감콘텐츠 융합 아카데미도 운영했다. 수요 맞춤형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 실감콘텐츠 역량강화 교육(56명), 실감콘텐츠 개발 관련 현장교육(10명)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방식인 지역 적합형 사업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전국 13개 센터 중 유일하게 초기 스타트업 육성부터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 지원은 '스타트업→실감콘텐츠 융합제품 상용화·유통·판매→수익창출→글로벌 진출'이라는 원스톱 성장 모델을 구현한 것이어서 전국적인 모델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지난 3년간 전남VR·AR제작거점센터를 통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기업 육성 114개사, 인력 양성 223명, 일자리 창출 207명, 기업 매출 증가 12억2000만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전남 실감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